

W\_F\_624

## 소복을 입은 귀신과 청년

2018년 7월 28일, 제주시 연동 김옥자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김옥자(여, 1944년생, 제주시 연동)

- 서귀포시 중앙동 출생, 결혼 후 1970년대에 제주시 용담동과 오라3동으로 옮겨 살다가 30여 년 전부터 연동에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서귀포에서 효돈으로 가는 길목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자꾸 보였다. 마침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과수원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려 온 청년이 소복의 여인을 밤마다 집에 들이는 줄 알고 걱정했던 과수원 일꾼들이 다같이 49제했던 절밥을 먹다가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다.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스님의 되물음에 아니라고 부인하자, 스님이 떠도는 영혼일 거라는 말에 더욱 놀라 청년은 아예 짐을 싸고 과수원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.

[제보자] 서귀포 들어가는 입구에 비석거리엔 헌 디가 있어. 그쪽은 어디냐 허믄 효돈 가는 길목이. 그 중간이가 좀 으쓱허여이. 게난 또 그디서가 도깨비 귀신이 막 잘 나타나. 우리는 안 봇주마는. 불빛이 바짝바짝 허영으네 상복 입어그네 왓다갓닥 허영으네. 경현디 우리 눈에는 안 보여.

경현디 우리 하논이 과수원이 널렁으네 그디는 막 얘기무덤이영 무덤이 다 공동지라. 그단 절간 봉은사도 잇고, 경현디 이제 밤에는 미깡이 흔허난 헌디 그제는 다 지켰어. 게민 하도 널러노난 여기 ㅎ啐하고 저 우에 헤그네 지키고 훈디. 저 총각이 왓인디. 저 지키레 왓인디. 살례 왓인디 그 사름은 공부흘 목적으로, 낮에는 일흘고 밤이는 공부흘 목적으로. 경찰관뒈肯 허멍 공부흘 목적으로 그축 허면은. 저 우이 ㅎ곡 밑에. 게난 그땐 전화가 엊어 부난. 불빛으로 헤영으네 신호를 허는 거라.

아래는 질이 막 좋나게. 아래는 집이 두 채 있고, 다음은 절간 봉은사 절 잇고 헌디. 경현디 그디가 밤이 지키레 밥 먹언 올라갓인디. 하아얀 소복 입언이 그디 가는 거라.

[조사자] 귀신마씨?

[제보자] 귀신. 게난 요 아래 사는 사름이 본 거라. 요 아래 지키는 일꾼이. 경허난 이젠.

“아이, 저놈이 새낀 공부허肯 헤돈 맨날 저녁 때 웨면은 여자 찾양에 공분 언제 허젠풍인고?”

허멍, 그 사람도 첫판 곤지 못허영. 미안시러완. ‘맨날 여자 데령 가그네. 밤엔 공분 언제허곡.’ 허멍 지네끼리만 일꾼들이영 본 사람들만 수근수근헐 거 아니. 경현디 또 스님신디도 그디 인가가 엊어부난에 49제 헤나믄 그 밥이영 막 하잖아. 경허연 버리지 못허난 그 밥 다 우리 과수원으로 가져와. 우린 그때 보리밥 먹을 때난. 가져왕 영허믄 일꾼덜 먹곡 그추륵 허는디. 비 올 때는 다 아래 내려왕으네 화토 치곡 허멍 노는 거라이. 경허난, 놀다네 말이 나온 거라. 그 사람덜.

“넌 공부, 낼모리 시험 치를 거렌 허는데, 자꾸 여자덜 데령 경허믄 공부는 언제 혈래?”

허멍 충고를 헌 거라. 경허난 야이는 깜짝 놀래는 거라이.

[조사자] 그런 일 엇인디예.

[제보자] 응. 그런 일 엇인디. 맨날 그딜로 들어가는 거 봇다 허난. 야인 그 말 들으난 온 몸이 와싹한 거라이. 경허난 옆이서 스님이

“아이고, 누게 옆이 없었어?”

허난

“아니요. 그런 일 없어요.”

경허난 스님이 그 말은 이젠

“영혼이, 떠도는 영혼이 그디 간 쟁이여.”

허난, 하이구, 야이는 이젠 공부고 씨고 못 살肯. 그땐 와싹 허연. 아래 내려와 네. 밤에 그디 안 지키肯 아래 내려왓인디. 그 당시는 그런 귀신덜은 하낫주게.

- 핵심어: 소복, 여인, 과수원, 절, 스님, 영혼, 공부, 비석거리, 효돈